

참전용사 미망인과 한국아들의 특별한 인연

〈프랑스 니콜 베나르 여사〉

〈대연동 주민 이명래씨〉

나비 닮은 호접란이 3년째 꽃을 피웠다. 올해도 때마추어 그 주인이 찾아왔다. 프랑스에서 또 한분 나 어머니가 부산에 오셨다. 이 꽃을 안겨주고 간 분이다.

5년 전 그녀의 남편 레이몽씨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었다. 그는 6·25 참전용사로 한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사자가 아닌 전후 생존 사망자의 유엔공원 안치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유엔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것이다. 2016년 5월, 레이몽씨 추모 1주기 대 인터넷을 통해 그 가족들은 유엔기념공원 근처에 방을 찾고 있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가족들을 우리집에 묵게 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이역만리 먼 길 탓일까, 레이몽씨의 묘역에서 그 가족들은 차마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우리가 수시로 찾아뵙겠다고 위안을 드렸다. 짧은 시절 중풍으로 생모를 여인 상실감에 중국으로 한의학공부를 다녀온 필자에게 또 한분의 어머니를 만난 것이다. 퇴근길 나의 잠미 한 송이에 푸른 눈 어머니의 포옹은 참 따사웠다. 파리로 떠나던 길 어머니는 그 장미를 묘비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은색화분의 나비 꽃을 안겨주었다.

그 양란이 꽃을 피워내던 지난해 이 맘때였다. 핸드폰 너머로 호텔 프런트에서 프랑스 할머니와 중년 딸이 나를 찾았다 알려왔다. 고인 된지 4년 레이몽씨의 생일을 맞아 부인인 니콜 여사가 온 것이다. 그 전에 우리 가족이 파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부산 식구들을 한번 더 보겠다고 공항버스로 다시 찾아왔다. 그때 가내서 읽은 편지의 감동은 아직도 내 가슴에 줄을 그으며 비행하고 있다. “내 남편 레이몽은 조국이 두 개다. 그는 의리있고 따뜻한 한국인들의 품에 영원히 잠들고 있다.”

니콜 베나르 여사는 지난 2015년 5월 유엔기념공원 첫 번째 사후안장자로 묻힌 프랑스 참전용사 레이몽 베나르 씨의 부인이다. 남편 유해 안장 이후 매년 5월이면 프랑스 가족과 함께 남편의 묘역을 실퍼러 이역만리 남구를 찾고 있다.

대연동 주민 이명래씨(한국자산관리공사 선임위원)는 2016년 이들 가족에게 숙소를 무상 제공해 준 인연으로 니콜 여사와 국경과 세대를 넘어 프랑스 엄마와 ‘한국 아들’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88세인 니콜 여사는 남편 곁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유엔기념공원으로부터 사후 안장을 승인받았다.



그전부터 한 달이 멀다하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손편지를 보내왔다. 그때마다 따로 남편에 대한 사람과 그리움을 적었다. 그 사부곡(思夫曲)의 절정을 지난 방문 때 보았다. 본인도 꼬레아에 남편과 잠들겠다 신청하는게 아닌가. 돌아가는 걸음걸이가 바람에 흔들릴듯해 노파의 부산 방문이 생전에는 마지막이었구나 여겨졌다.

그런데 올 초 이 꽃이 다시 피었다.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리의 어머니가 또 오셨다.

이번에는 공항 문이 열리자 휠체어로 모습을 보였다. 88세 연로하신데다 관절수술을 하여 들쭉날쭉 지팡이에 의존해 겨우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하자 여정에 없던 큰딸과 외손자가 보이는 게 아닌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하는 백발노모의 커진 눈동자와 홍조된 얼굴을 읽을 수 없다. 연로한 어머니의 해외나들이에 그 여들을 들여드리려고 가족들이 하루 먼저 와서 기다린 것이다. “나를

날아준 부모는 세상에 다시는 없는 분들이다” 한 달 전 레이몽씨를 찾은 둘째아들이 남긴 한마디와 이번 가족들의 연출은 마치 단추를 제구멍에 끼우듯 꼭 맞았다.

첫 부산 방문 때 아내가 큰방에서 한복을 꺼내왔다. 나에게서는 품이 좁 커먼차 프랑스의 중년 아들에게는 꼭 맞았다. 귀국길 서울 시내에서 두루마기로 수많은 인파의 눈길을 끄는 사진을 보내왔다. 뿐 아니라 소장하던 레이몽드씨의 100여점 유물을 전쟁기념관에 기증하던 기사도 보았다. 그 유품들이 유엔평화기념관에 공유되어 있다. 기부자들의 명단이 영예의 전당에 올라있고 레이몽드씨 이름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남편의 이름을 어루만지는 어머니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올까 나의 속내를 알아차린 걸까. 우리집에 들어서자 하얀 실내화를 내어놓으며, “다시 오마” 방점을 대신했다. 두 짝 모두 프트머리에 당신의 이름이 적힌 것이다.



유엔기념공원에 묻힌 남편의 묘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니콜 베나르 여사와 대연동 주민 이명래씨.

파리의 어머니는 17세 때 세살 많은 남편과 약혼하였다. 직업 군인인 아버지로 부터 그 책무를 익히들은 그녀는 그해 남편의 한국참전에 동의했다. 전쟁 후 부부가 65년을 행복하게 지내다 남편이 고인 된지 5년째, 아직도 남편을 못 잊어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며 11시간 비행을 견뎌 찾아온 것이다. 지고 지순한 부부애가 하늘에 닿은 걸까. 눈부시게 주인의 행차를 앞섰던 나비꽃이 이런 순애보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명래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임전문위원·부산남구신문 편집위원)

위트컴 장군 추모식

7월 12일 유엔기념공원

일생을 한국의 전후복구를 위해 헌신한 고(故) 리처드 위트컴 장군의 37주기 추모식과 세미나가 7월 12일 유엔기념공원과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에 개최된다. 이날은 1982년 장군이 사망한 기일이다.

위트컴 장군은 1953~4년 부산 지역 군수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의 재건과 한국의 전후복구에 헌신했다. 1953년 11월 27일 발생한 부산역전 대화재로 3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군법까지 어겨가면서 미군 군수물자를 이재민들에게 나눠줘 주기도 했다. “한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의 따라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었고 한국인 부인 한모숙 씨도 지난 2017년 1월 별세해 위트컴 장군 묘소 옆에 묻혔다.



캐나다 참전용사 유해 안장

6·25전쟁 캐나다 참전용사 고(故) 알베르트 휴 맥브라이드씨의 유해 안장식이 지난 6월 12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렸다.

맥브라이드씨는 캐나다 제2기갑연대 로드 스타레스크로나 홀스 소속 포병이자 전차병으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1월까지 참전했다. 전역 후 다시 캐나다 왕립공군에 입대해 22년간 복무한 그는 2017년 3월 8일 85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청와대 6·25참전 유공자 초청 행사를 진행한 캠프 에이시아 양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활짝 웃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청와대를 들었다 났다한 남구의 평화 전도사

캠벨 에이시아, 청와대 참전유공자 초청행사서 ‘맹활약’ ‘공군전력 참전국 초청행사’ 서 감사편지 읽어 기립박수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인 캠벨 에이시아(용문초 6) 양이 지난 6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유엔군 참전유공자초청 오찬에서 진행을 맡아 크게 화제가 됐다.

행사 사회 외에도 참전용사들을 위해 노래 공연과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제목

으로 숨은 전쟁영웅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참전용사 현장 인터뷰 등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찬에는 국군 참전유공자 141명, 미군과 교포 참전용사 37명 등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182명이 참석했다. 에이시아 양은 ‘청와대를 들었다 났다한 꼬마 스타의 탄생’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에이시아 양은 앞서 18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6·25 공군전력 참전국 초청행사’에도 초청돼 영어로 쓴 감사편지를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6·25전쟁 당시 공군전력을 파견한 미국, 영국, 터키 등 8개국의 주한 대사와 국방부관들이 참석했다. 몇 주에 걸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써 내려간 감사편지에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에이시아 양은 지난해 11월 부산남구신문이 단독 보도한 ‘유엔군 노병 소원 풀어주는 용호동의 소녀의교단(제274호 5면)’ 기사를 시작으로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평화의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해군작전사령부

남구 6.25 유공자 초청행사



해군작전사령부(사령관 중장 박기경)는 6·25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4일 남구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해 보훈행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해군작전사령부 소개영상 시청과 부산작전지 지인 해상에서 합정 승조체험을 실시하고 감사의 표시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한편 해군작전사령부는 6월 28일 대한해협대전 전승 69주년을 맞아 대한해협대전전승 기념행사와 해군작전사령부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해협대전 참전용사와 가족, 부산지역 주요 지휘관, 참모, 기관장, 예비역·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대한해협대전은 6·25전쟁 발발 다음날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PC-701)이 무장병력 600여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침투하던 북한 1,000톤급 무장수송선을 격침해 6·25전쟁의 양상을 바꾼 첫 승전이다.



6·25 69주년 추모행사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5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 전물용사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과 참전 용사 유가족, 보훈단체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다음날인 26일에는 남구 내 보훈 단체들이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했다.

UN평화문화특구 협의체 7월 소식

기관명	행사명	일시	장소	관람료	문의처
부산박물관	제35기 역사문화강좌 <고인골 및 미라 관련 역사문화강좌 진행>	7. 23. (화) ~26. (금)	부산박물관 대강당		610-7182
	부산문화가 있는 날 <양상을 ‘별하’>	7. 26. (금) 오후	부산박물관 부산교 로비		610-7181
	토요박물관교실 <부산의 독립운동관련 수업 및 포일아트로 태극기 만들기>	7. 27. (토) 오후	부산박물관	무료	610-7184
	박물관투어 <부산박물관 및 소속분관 (동상동패충전사관, 근대역사관) 버스투어>	7. 31. (수) 오후	부산박물관, 동상동패충전사관, 근대역사관		610-718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53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의 첫번째 음악회>	7. 5.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5만원 A석 1만원	
(재) 부산문화회관	도외취외 안전맨 <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7. 2. (화) ~31. (수) 11: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전석 2만원	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65회 정기공연 ‘태백 3부작’	7. 18. (목) ~20. (토) 평일 19:30 주말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	
	부산시립극단관현악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7. 24. (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층 1만원 2층 5천원	
	예술기행 공유전시회	6. 25. (화) ~7. 19. (금)	김민정의문화촌 사랑방 갤러리		745-7245
	사상인디스테이션인디페스티벌 ‘인디 뒤풀’	7. 19. (금)	사상인디스테이션	무료	316-763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9 토타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김동욱 개인전-	7. 3. (수) ~17. (수)	토타아트센터 1층		263-8663
	3·1운동 및 임시수립 100주년 기념 ‘전쟁과 인권 상영회’ 상영작: 인생은 아름다워	7. 21. (일) 14:00			629-8634
	‘인문학 특강’ 강사: 배경환 교수 주제: 세계사 속의 3·1운동 -한국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	7. 6. (토) 14:00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무료	629-8632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우리는 결연한제!’	주중 (일정 및 시간 유선 협의)	6층 멀티미디어실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출발! 역사로 탐험대’				
부산예술회관	제9회 젊음의 축제 ‘젊음, 비바체로’ 젊음, 쏘타다(대학가요제)	7. 3. (수) ~4. (목) 19: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노림의 미학 시조, 천년의 맥을 잇다	7. 6. (토) 18: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 교류공연 극단 맥 <내 마음의 풍금>	7. 13. (토) 1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12-1372
	작은영화콘서트 <올림>	7. 16. (화) 16: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문화가 있는 날 <오동일무 五等舞>	7. 31. (수) 19: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유엔평화기념관	네덜란드 참전용사 특별 사진전 2019 UN참전국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12. 1. (일) 7. 23(화) ~28. (일)	유엔평화기념관 필리핀 마닐라	무료	901-1408
	피망놀이: 피인된 히어로	매주 화 ~ 금	유엔평화기념관 및 유엔기념공원	무료	901-1406
UNPM 패밀리 서포터즈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7월 정기환경정화봉사활동	7월 매주 토요일	UN평화문화특구 일대	무료	901-1402

대한 하늘의 별이 된 푸른 눈의 ‘탑건들’

〈최정애 조중사〉



캠벨 에이시아의 평화를 찾아서

6.25 참전 8개국 공군에 올리는 감사의 편지

70년 전 좁 여려분들은 알려지지 않은 작고 초라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제 인생과 모든 한국인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전쟁은 종종 잊힌 전쟁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1950년 6월 25일,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망각한 그것은 저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남자와 여자들이 관한 개인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용감한 참전용사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울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하늘의 조종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제4전투요격비행단에 배속된 21명의 캐나다 공군 조종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토마스 허드슨 할아버지(전투기를 고의로 불시착해 동료를 구조한 공로로 2015년 한국정부로부터 태극무공훈장 수훈), 당신은 두려움은 그저 단어에 불과하고, 우정과 충성심은 어떤 장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캠벨 에이시아 양이 지난 6월 18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6·25전쟁 공군전력 참전국 초청행사’에서 8개국 대사와 무관,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들 앞에서 감사 편지를 낭독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사진 앞줄 가운데가 캠벨 에이시아 양. 사진 제공=공군

6.25때 공군 전력 파병 8개국 조종사들에 감사 편지 낭독 몇 주 걸쳐 직접 자료 조사… 각국 대사·무관들 기립박수

보여주셨습니다. 비행중대장 그램 스트로우트(Graham Strout, 유엔기념공원 안장)와 호주공군이 우리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보여준 희생과 노력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상공에서 6년을 싸우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 다시 비행에 나서준 800, 802 해군 비행중대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남은 치타들(1950년 11월~1953년 12월 전쟁 중 1만2000명이 넘는 출격을 감행한 남아프리카 연방공군의 제2연대)”, 여러분들의 잊을 수 없는 행동은 한국인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터키 전투기 조종사 무자페르 에르핀 메즈(MUZAFFER ERDONMEZ, 유엔기념공원 안장), 숨지기 직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은 당신의 용기가 있는 행동은 모든 한국인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간호사, 공수지원 등 항공지원팀 여러분, 당신들은 창공의 천

사였습니다. 가평 전투에서 사흘 동안 치열한 격전을 벌인 캐나다 병사들이 하늘을 올라다 봤을 때 바로 그곳에 당신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참전군인 제랄드 게이 할아버지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된 채 탄약도 다 떨어졌고 식량도 바닥을 보였어. 극도로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하늘에서 공중 보급품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

이 용감한 공군들에 관해 알면 알수록, 제가 알게 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서 만난 분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멋진 삶에 언제나 감사할 것이며 제가 이룬 업적과 목표 그리고 제 미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참전용사님을 덕분입니다.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용문초6